

반려동물의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석은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해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The Effect of Rearing Knowledge on Rearing Satisfaction in Companion Animals

Seok-Eun Kim

Department of Animal Resources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et Care, Hyejeon College)

요약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주고 있어 코로나19(COVID-19)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또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시대이기도 하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인 자살률은 정서적인 안정에 효과적인 반려동물이 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큰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지식이 양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수준과 전염병인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반려동물의 관리수준은 반려동물의 양육만족도에 매우 유의깊게 ($p < 0.001$) 영향을 미쳤지만, 전염병인식은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p > 0.05$). 반려동물의 양육 지식을 갖고 양육을 하면 양육 만족도는 높아지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지식은 개인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배려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Companion animals are physically, mentally, and socially beneficial to humans, giving us great comfort in living in the Corona19 (COVID-19) era. It is also an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eaturing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Korea, which is facing a super-aged society,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and companion animals that are effective in emotional stability can be the answer. This study is about companion animals that are effective in stabilizing the emotions of the elderly,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about to solve in a super-aged society with more than 20 percent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needs to solve. The impact of knowledge of raising companion animals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management and awareness of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the level of care of companion animals had a very significant ($p < 0.001$)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companion animals, the recognition of infectious diseases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5$). Raising companion animals with knowledge of rearing increases the satisfaction level and can lead to a happier life. While personal learning is important, it is also believed that supporting education will be necessary as a policy consideration.

Keywords : Companion Animal, Rearing Knowledge, Petiquette, Rearing Satisfaction, Super-Aged Society

*Corresponding Author : Seok-Eun Kim(Kongju National Univ.)

email: sekim@kongju.ac.kr

Received November 9,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December 16,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개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가축과는 달리 애교가 많아 한 식구처럼 살아왔다. 주인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잠을 잘 때도 묵묵히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혼자서 동분서주 불을 끄다가 지쳐서 끝내는 주인을 구하고 숨진 수많은 충견·의견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1].

예전에는 개를 애완동물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대부분 호칭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1~2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아예 아들딸 삼아 생활하는 펫팸(pet+family)족까지 생겨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6.4%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의무감에 한다가나 부득이 하게 된다면 직무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져 동물학대 경험과 생명존중 의식의 저하까지 이른다[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준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3].

우리는 반려동물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므로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가족 이상으로 돌보고 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는 사회이다. 개인의 질병 발생은 화학물질이나 영양결핍 등과 감염성 질병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이다. 원인체가 단 한 가지만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개가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집단에서는 개체,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4].

개는 인간과 함께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가축화 된 많은 동물이 있지만 유독 개는 충직하고 변함없는 성품으로 인간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개는 데리고 논다는 애완동물에서 함께 더불어 산다는 반려견으로서 더 사랑을 받는다[5]. 개와 함께 사랑을 받는 고양이는 그 '까칠함'의 매력으로 또한 사랑받는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대표하는 것은 개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다. 인간이 가지는 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적 위치

가 높아져 국가적 차원의 예우는 현실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6].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까지도 조사하는 것을 보면 그 위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동물행동학자 K. 로렌츠 박사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하였다[7].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말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보편적인 단어로 애완동물보다도 더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고령화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8].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조 또한 급격한 변화로 고령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10년 넘게 지키고 있다. 노인들이 갖는 외로움, 고독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 이의 해결책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은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9].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 자연스런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결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3D Printer, Mobile 등 우리들의 삶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다가왔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개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반려동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만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이는 개의 특성을 잘 모르거나, 어렸을 때 개로부터 위협적인 공격이나 짖음 때문이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자폐아들에게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우울감도 해소하는 효과도 있고, 거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10]. 반면에 반려동물에 대하여 잘 모르면 함께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려동물의 법적 의미는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와 함께 토끼, 페럿, 기니피그와 햄스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에는 개, 고양이, 햄스터 등의 포유류와 앵무새, 카나리아 등의 조류, 금붕어, 열대어 등의 어류,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의 파충류가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듯이, 반려동물산업 중

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소진으로까지 이어져 동물학대 경험과 생명존중 의식의 저하까지 이른다[11].

양육지식은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좁혀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관리수준과 전염병인식에 근거하였다. 반려동물의 양육에는 많은 정보와 정성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산업은 3대 기본산업인 사료, 용품, 수의진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반려동물문화가 발전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였다[12].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보험이나 반려동물의 장묘·장례시장이도 발전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은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양육이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는 뜻이다[13]. 반려동물을 아이와 같이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부모마음으로 자식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이다.

양육만족도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자신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원인으로는 시간적, 경제적, 주거 환경적 이유 등을 들 수 있다[14]. 또한 반려동물의 양육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양육도 자녀를 키우기 전,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비슷하다. 유기된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쓰레기봉투를 헤집는 일이고,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을 피하여 인근 야산에서 생활하다가 광견병을 옮기는 전염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이나 함께 생활하려면 에티켓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에 대한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반려동물도 인간과 함께 한 지붕아래에 살려면 사회화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식사와 대소변의 예절이 중요하다. 사람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만, 강아지는 대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수명이 15~20년 이어서, 버릇이 형성되는 시점도 빠르다. 생후 2개월령(8주)을 전후로 양육을 시작하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양육만족도에 양육지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사 분석하였다. 우리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인간들을 위해하거나 인수공통전염병을 옮기는 숙주가 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방역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양육만족도는 아는 만큼 더 만족을 느끼게 된다. 반려동물의 양육 지식을 갖고 양육을 하면 양육 만족도

는 높아지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양육지식이 높으면 양육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결론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이들이나 앞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일 반상식이 되기를 바라며, 정책자에게는 반려동물산업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충실하게 응답한 400부를 조사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남성 192명 (48%), 여성 208명(52%)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92	48.0
	Female	208	52.0
Age group	~20	221	55.3
	20~24	151	37.8
	25~	28	7.0
Household annual income	1	193	48.3
	2	153	38.3
	3	54	13.5
Family members	1	5	1.3
	2	10	2.5
	3	50	12.5
	4	239	59.8
	5	93	23.3
	6	3	0.8
Management level	1	39	9.8
	2	125	31.3
	3	209	52.3
	4	22	5.5
	5	5	1.3
All	400	100.0	

2.2 조사내용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의 인구사회학적통계 내용과 양육지식은 관리수준과 전염병인식에 대하여 설문 하였다.

2.3 통계처리 및 분석

조사한 설문결과는 SPSS 통계패키지(Ver. 23.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3. 연구 분석 결과

3.1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 양육만족도 및 독립변수인 관리수준, 전염병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가 사용하는 이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준다. 분석결과 양육만족도와 관리수준은 $r=.349^{**}$, 전염병인식의 상관관계는 $r=.153^{**}$ 으로 나타났다. 양육만족도와 관리수준 및 전염병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of rearing and the satisfaction of rearing

Classification	Satisfaction	Age	Household income	Family members	Management level	Infe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1					
Age	.105 [*]	1				
Household income	-.099 [*]	-0.003	1			
Family members	0.002	-0.055	-0.046	1		
Management level	.349 ^{**}	.105 [*]	-.213 ^{**}	.143 ^{**}	1	
Infection recognition	.153 ^{**}	-0.075	-0.013	0.083	.363 ^{**}	1

^{*}: p<0.05, ^{**}: p<0.01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r=.105$, $r=.363$ 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회귀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의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VIF가 1.031~1.272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F값은 205.657($p=.000$)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명력도 15.7%로 나타났다(Table 3).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모든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분석한 두 가지 양육지식에 관한 변수 중 관리수준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염병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리수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육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329$, $p=0.000$). 그러나 전염병인식에 대한 점수는 양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4$, $p=0.254$).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 between the knowledge of rearing and the satisfaction of rearing

Classification	Non-standardization factor		t	p-value	
	B	Standard error			
(a constant)	0.929	0.624	1.488	0.138	
Gender	-0.170	0.088	-1.926	0.055	
Age	0.020	0.024	0.844	0.399	
Household income	-0.049	0.058	-0.850	0.396	
Family members	-0.051	0.052	-0.983	0.326	
Residence	Small&Medium-sized city	0.261	0.094	2.781	0.006
	Rural areas	0.255	0.108	2.353	0.019
Rearing knowledge-Management level	0.329	0.057	5.813	0.000	
Rearing knowledge-Infection recognition	0.044	0.039	1.143	0.254	
R ² (Modified R ²)		0.157 (0.139)			
Durbin-Watson		1.683			
F (p)		9.073 (0.000)			

4.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만남보다는 비대면으로 점점 외로움에 직면하는 이들에게 반려동물의 양육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조사 분석하게 되었다.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양육에도 관리 상식이 있고, 전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듯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에 갖고 있는 반려동물의 양육 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의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관리수준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전염병인식은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려동물의 양육 지식을 갖고 양육을 하면 양육 만족도는 높아지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만으로는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반려동물의 양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직접적으로 양육 지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어 본 연구가 부딪히게 되어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지식은 개인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배려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려동물이 천만을 넘고 반려인구는 1500만을 헤아리는 시대에 반려동물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양육 지식을 높여 양육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부족한 연구는 향후 좀 더 세분화한 설문으로 깊이 있고 의미있는 연구의 수행을 다짐한다.

References

- [1] R. O. Choi, Human speaking a righteous dog story - That sort of classification, Interpretation, *Korean Studies Quarterly*, pp.131-141, 1983.
- [2] H. J. Park, G. C. J, The Relationships between Pet Animal Industry Worker's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Animal Abuse Experience, and Life Respect Consciousness, *Journal of the Koran society for Wellness*, vol.15, no.2, pp.367-379, 2020.
DOI: <https://doi.org/10.21097/ksw.2020.05.15.2.367>
- [3] S. Y. Kim, H. I. Park, The Effect of Pet on Happiness through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A Mediation Model Moderated by Mindfulnes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3, no.4, pp. 1001-1018, 2018.
- [4] S. J. Lee, *Epidemiology and prediction for outbreaks of major zoonosis in Korea*,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0.
- [5] G. W. Kim, S. E. Kim, Analysis of Raising Skill Level and Prospects on Pet Industry by Socio-Ecological Status Group,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12, no.1, pp.67-74, 2006.
- [6] J. H. Kim, *Effects of Companion Dogs-Fostering Experiences on Depression Redu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of Companions-Mixing Quantitative Analysis with Qualitative Analysi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2019.
- [7] S. Y. Lim, O. J. Kim,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Pet Care on Children-Focusing on Life Respec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Seoul, Korea, vol.5, no.2, pp.79-89, 2016.
- [8]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tatistical Data, Seoul, Korea, 2020.
- [9] Y. H. Mun, H. J. Kim, The Effect of Companion Animals on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7, pp.455-477, 2011.
- [10] Y. T. Heo, C. S. Park, Effect of Companion Animals on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23, no.3, pp.133-151, 2019.
- [11] H. J. Park, G. C. J, The Relationships between Pet Animal Industry Worker's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Animal Abuse Experience, and Life Respect Consciousness, *Journal of the Koran society for Wellness*, vol.15, no.2, pp.367-379, 2020.
DOI: <https://doi.org/10.21097/ksw.2020.05.15.2.367>
- [12] J. H. Kim, *Relationship of the Experience of Keeping a Companion Animal to Mental Healt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Korea, 2019.
- [13] S. M. Youn, *A Study on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Adopting Companion Animals on Self-Esteem and Society: Focused on the Moderating of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14] B. G. Woo, *Occurrence of Abandoned pets and for effective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conomy and Trad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5.

김 석 은(Seok-Eu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2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애원동물관리과 외래교수(강사)

<관심분야>

동물자원경영, 반려동물 문화